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53
------	------

2016. 9. 2.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6년 8월 1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6.9.2)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장혁재)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수여대상자

1) 명예시민 : 총 21명 (남 14, 여 7) ※세부명단 별첨

가) 국적별 : 14개국 21명

(미국 3, 브라질 1, 볼리비아 1, 콜롬비아 1, 독일 4, 프랑스 1, 스위스 1, 이탈리아 1, 네팔 1, 중국 2, 싱가포르 1, 대만 2, 앙골라 1, 몽골 1)

나) 분야별 : 외교 6, 교육 2, 경제 6, 문화·관광 등 기타 7

※ 서울 거주자 18명, 해외 거주자 3명

2. 추진경과

- 2016. 7.04~ 7.29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추천서 접수 (총 26명)
- 2016. 8.01~ 8.09 공적 및 거주기간, 출입국위반 등 조회
- 2016. 8.10 명예시민증 수여심사위원회 개최
(추천자 26명 중 21명 선정)

3. 수여예정일

- 2016. 10. 28 「명예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시

4.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시민과 서울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외국인 가운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21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명예시민 선정절차 및 운영현황

- 서울시(이하 “시”)는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귀감이 되는 외국인이나 방문 외빈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의 명예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선정은 후보자 추천공고와 추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 시의회의 동의 과정을 통해 엄격히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상자 선정을 막고 명예시민증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음.
- 시는 1958년 관련 제도¹⁾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92개국 743명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으며, 최근에는 2014년

1) 1958년 공로시민증 제도로 시행되었으며, 1972년 근거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와 같은 명예시민증 제도로 정비되어 운영되고 있음.

21명, 2015년 25명, 2016년 3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음(참고자료 1).

다. 명예시민 선정의 적정성

-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공공단체와 사회단체의 장, 30인 이상의 시민에 의해 추천받은 26명을 대상으로 시정 공로를 비롯한 공적사항과 범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국내 법규 위반사실이 있거나 서울시정과 연관성이 부족한 5명을 제외한 21명을 최종적으로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이런 절차에 따라 선정된 수여 대상자 21명은 모두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서울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으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외국인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추천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다고 판단됨(참고자료 2).
- 향후에도 공적 및 거주기간, 범법사실 확인, 시정과 연계성 등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사전 검증 과정을 통해 명예시민증 수여의 취지와 시민증 자체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아울러, 최근에 새롭게 선정되는 명예시민의 주요 공적이 투자유치나 경제, 관광분야 등에 한정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해 향후 문

화, 스포츠, 환경, 인권 등으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명예시민에 대한 사후관리

- 우리 조례는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하거나, 시정참여 기회 제공, 서울시립미술관·서울역사박물관·도시공원의 입장료 면제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음.
- 최근 각 자치단체가 명예시민 혹은 명예도민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명예시민 제도의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명예시민증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외에도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출·입국시편의 제공 등 보다 실질적이고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명예시민증 수여의 당초 취지인 국제교류협력과 우호증진, 서울시 브랜드의 제고에 기여하고, 이들이 서울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네트워크 유지, 시정에 대한 관심 증진과 참여 유도 등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됨.
- 최근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 범법 사실 등 사전 조사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명예시민의 권위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상자에 대한 사전 조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SNS의 적극적 활용이나 각 자치구

협조와 같이 대상자 추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의안 번호	1353
----------	------

제출년월일 : 2016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여대상자

1) 명예시민 : 총 21명 (남 14, 여 7) ※세부명단 별첨

가) 국적별 : 18개국 21명

(미국 4, 브라질 1, 볼리비아 1, 콜롬비아 1, 독일 3, 프랑스 1, 스위스 1, 이탈리아 1, 네팔 1, 중국 2, 싱가포르 1, 대만 2, 앙골라 1, 몽골 1)

나) 분야별 : 외교 6, 교육 2, 경제 6, 문화·관광 등 기타 7

※ 서울 거주자 18명, 해외 거주자 3명

나. 추진경과

- 2016. 7.04~ 7.29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추천서 접수 (총 26명)
- 2016. 8.01~ 8.09 공적 및 거주기간, 출입국위반 등 조회
- 2016. 8.10 명예시민증 수여심사위원회 개최
(추천자 26명 중 21명 선정)

다. 수여예정일

- 2016. 10. 28 「명예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시

라. 관련근거

1)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제1항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및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음

2) 수여대상자 결정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제1항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공공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된 자 중에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3) 서울시의회 동의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제2항

시장은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국제교류담당관 중국팀 김정림 (☎02-2133-5267)

2016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명단 (21명)

번호	성명 (출생연도)	현직	국적 (추천자)	공적
1	리차드 스미스 (Richard M. Smith) (1946)	SIBAC 위원 (부의장), 핑커톤 재단/이사 장	미국 (서울시 경제정책과장) (특수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위원 및 2010년부터 부의장 활동 ○ 2008년부터 SIBAC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매년 자문단 운영과 총회 개최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 자문 제공 ○ 2011년, 2013년 제외한 SIBAC 총회 매년 참석, '16년 총회 참석 예정
2	피터 잭 (Peter Zec) (1956)	SIBAC 위원, Red Dot Design Award 회장	독일 (서울시 경제정책과장) (특수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위원으로 활동 ○ 2007년부터 SIBAC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매년 자문단 운영과 총회개최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 자문 제공 ○ 2010~2013년 제외한 SIBAC 총회 매년 참석, '16년 총회 참석 예정
3	밀란 퀴 (Kwee Milan) (1946)	싱가포르 태권도 연합 협회장	싱가포르 (서울시 관광정책과장) (특수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교육부주최로 매년 4~5월 기간에 각 급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태권도 대회가 개최되고 있음 ○ 다수의 중학교에서 CA클래스로 학생 전체가 참여 하는 수준의 프로그램 시행 ○ 암투병 어린이, 고아를 위한 태권도 프로그램인 '마음으로 전하는 태권도', '인격 함양을 위한 태권도' 프로그램 기획
4	아우스프룽 (Ausprung, Ulf) (1965)	한성자동차 (주)대표이사	독일 (서울시 문화정책과장 ·서울문화재단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메세나협회와 함께하는 한성자동차 미술영재 장학사업 '드림그림' ○ 서울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서울시 공공예술 프로젝트' MOU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서울중앙시장 상인들의 휴식공간인 '어울림터' 간 개선 - 2015년 구로 디지털단지역 환경 개선 '구로 도시 게릴라' 개최 ○ 서울시민의 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자동차와 예술을 접목한 한성자동차 오토갤러리 기획

번호	성명 (출생연도)	현직	국적 (추천자)	공적
5	프란시스코 베르무데즈 (Bermudez Huertas Francisco) (1956)	한국외국어 대학교 교수	콜롬비아 (한국방송 국제방송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희대학교 글로벌 협력 사회 클럽(GCS)에서 콜롬비아 대표장으로 다른 나라에 한국과 콜롬비아를 알리면서 국가 간의 우정과 협력관계 촉진 ○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관련 공공 기관 및 대학교 대표단과 서울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과 컨퍼런스 참여 ○ 1991년부터 서울의 문화, 교육, 관광을 소개하는 비디오 클럽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콜롬비아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서울 홍보 활동
6	스테파노 가에타노 디 살보 (Stefano Gaetano Di Salvo) (1972)	JW 매리어트 총주방장	이탈리아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부터 파크 하얏트 서울, 파크 하얏트 부산, JW 매리어트 총주방장으로 요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한국 요리 문화 홍보에 기여 ○ 서울과 파리 간의 프로모션을 통해 한국 음식, 도자기, 유기제품을 소개하는 샬넬 유람선 쇼 기획 ○ 2010년 G20 서밋, 2012년 NSS 서밋에서 이탈리아 주요 인사를 위한 행사 참여
7	크리스토프 하이더 (Christoph Heider) (1966)	주한유럽 연합상공 회의소 사무총장	독일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한국경영총협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회사와의 연결을 희망하는 서울글로벌센터의 인큐베이터,스타트업활동 ○ 서울 서남지역 발전을 위한 마곡지구 투자홍보 활동 지원 ○ 서울시청과 유럽 시민 간의 타운 홀 미팅 조직 및 지원 ○ 한국과 유럽 사회에서 상호 이익을 위한 활동과 노력 지속
8	콩고 세르지오 (Sergio Joao Teixeria Congo) (1979)	앙골라 대사관 경제분부장	앙골라 (주한 앙골라 대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앙골라대사관을 대표하여 다양한 활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서울 아프리카 페스티벌 (아프리카 학회와 고려대학교 공동 주관) - 2015 서울 김치 나눔 페스티벌(서울시청 주관) - 2015 제1회 국제 STI&개발 컨퍼런스 (STEPI, 월드뱅크 공동 주관) ○ 비영리기관 Goat Basketball Korea 일원으로 다양한 봉사 활동 참여, “국제 서울 이민자 협회”와 “명진들꽃사랑마을” 성금 봉사 활동 참여

연도	성명 (출생연도)	현직	국적 (추천자)	공적
9	엘리자베뜨 샤마닐 (Elisabeth Renee Marie) (1960)	프랑스 국립극동 연구원 교수 및 서울 분원장	프랑스 (주한 프랑스대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서울의 추억 - 1886년부터 1950년대까지 교차된 운명」 출판 ○ 2013. 「단 이틀 머문 한국에 운명처럼 끝린다.」 출판 ○ 2012.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대한제국관” 국립국악원 전시 기획 ○ 2006.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서울의 추억. 한불 1886~1905」 출판(2007년 제8회 한불 문화상 수상) ○ 2001. 아시안 프랑스학교 한국센터(EFEO) 개설
10	소그투 우너르자야 (Tsogtoo Unurzaya) (1980)	몽골사회 복지부 한국지사 지사장	몽골 (주한 몽골대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과 한국의 발전을 위한 공무원, 청소년, 노인 교류 초청 사업 조직(서울시 사회복지협회 협력) ○ 한국 PD 교육원과 몽골국립방송 MNB 교류 행사 통번역 활동 및 주관 ○ 주한 몽골근로자 무료검진사업(안암병원, 몽골사회복지부 한국사무소 협력) ○ 서울시 외국인 치안 봉사대 활동(중부경찰서, 몽골 사회복지부 한국사무소 협력)
11	요르그 알로이스 레딩 (Jorg Alois Reding) (1951)	스위스 대사	스위스 (서울시민 94명 연대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분야 전문 외교관으로 한국, 스위스 사업 협력체의 회장을 역임 ○ 2000년대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간 FTA 협상 때 유럽 측 협상단 일원으로 한국과 스위스 경제 협력에 조력 ○ 2016년 1월 다보스(세계경제포럼)에서 서울시장과 스위스대통령 간담회 및 2016년 7월 스위스 대통령이 방한 시 서울시청 방문·시장님과 면담 진행 ○ 소장하고 있던 역사가 오래된 서대문지역 사진들을 서대문구청에 기부 ○ 국내 및 해외 미디어에 출연하여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
12	그래함 제즈리얼 제이슨 (Graham Jezreel Jason) (1973)	성균관대 학교 조교수	미국 (사이버 외교사절단 뱅크 대표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블로그에서 외국인 방문자들에게 서울 및 한식 홍보 - “국제커플 아침별 ♥ DR JJ의 글로벌 라이프” 운영하면서 국제커플 고민 상담 등 외국인의 서울 정착을 위한 협조 ○ 2006년부터 한국 및 서울 홍보 영문 자료 감수 ○ 2016년 서울 MICE 홍보 영상 모델 출연

번호	성명 (출생연도)	현직	국적 (추천자)	공적
13	권명희 (Quan Mingji) (1973)	생각나무BB 센터 봉사팀장	중국 (생각나무 BB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1월 ~ 현재 지역 다문화 봉사활동 ○ 2012년 4월 ~ 2014년 12월 새마을부녀회 봉사단 봉사 ○ 2009년 ~ 2012년 요양원 봉사, 독거노인 봉사 ○ 가정 불화(남편 폭력)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홀로 키우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노력하고 있어, 이주민들의 모범이 되고 있음
14	김레다 (Leda Kim) (1965)	중앙대학교 교수	브라질 (주한 브라질 대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 브라질 문화원 부원장으로 한-브라질 문화 교류에 크게 기여 ○ 2014·2015 브라질 데이 총괄. 주한브라질 문화원·주한브라질대사관 주관 ○ DMC(디지털미디어시티) 세계문화탐색전 기획·총괄 (2015.09) ○ 2012 Seoul of Brazil 3일간 이민 50주년 기념 음악 연주회(세종문화회관) ○ 2010 ~ 2013 구립 마포 청소년 문화의집 음악 영재 아카데미 부원장 ○ 2002 ~ 2012 서울 예술의 전당 음악 영재 아카데미 강사
15	난시 모니카 (Nancy Monica Astorga Perales) (1965)	스페인어 재능기부 교사	볼리비아 (주한 볼리비아 대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인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감사장 수여(1998)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지원 교육을 수료하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이주여성 대상 봉사활동 수행 ○ 2013년 재한 볼리비아 대사관 신설 후 한국에서의 볼리비아 홍보 활동을 인정을 받아 2014년 볼리비아 교민회 회장으로 선출됨 ○ 한국인과의 오랜 교류활동에 대한 연장으로 한국 외국어대 스페인어과 학생이 빠른 시간에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회화공부 봉사 활동

번호	성명 (출생연도)	현직	국적 (추천자)	공적
16	추신강 (TSOU HSIN CHIANG) (1964)	(주)한중상 무중심 대표이사	대만 (서울시 관광정책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주)한중상무중심 창업 이래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규모로 유치하여 서울 인바운드 여행시장 활성화에 기여 ○ 한국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 통역안내사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여 수준 높은 전문 관광통역안내사 양성에 기여 ○ 연평도 포격 피해 성금 전달 외 지속적인 기부 및 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피해 돕기 성금 기탁 -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대문구청 100가정 보듬기 결연 체결 - 마포구청 머느리봉사단 지원, 종로구 어르신들 위한 지속적인 기부 활동
17	담소영 (Tan Shao Jung) (1954)	중국항공여 행사 대표이사	대만 (서울시 관광정책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여행업협회(KATA)이사로서 관광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가교역할을 오랜시간 수행한 공로가 높임 ○ 현재 한국중화총상회 상임부회장 ○ 현재 한성화교중학교 이사 ○ 지속적인 기부활동으로 서울시 구청 발전에 기여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중구청에 매월 50만원씩 기부)
18	구룽 헐커만 (Gurung Harka Man) (1975)	사업가	네팔 (주한 네팔 대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에서 에베레스트 레스토랑, (주)에베레스트 대표 및 블랙야크 네팔 지점 대표로 활동 ○ 기능장애인협회로부터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에 대한 감사장 수상 ○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서울과 네팔 간 문화교류에 공헌 ○ 다양한 분야의 경제활동으로 서울 경제 활성화에 공헌 (여행, 교육, 부동산 등)
19	재미 리 (Jamee Lee) (1963)	미국여성클 럽 중역 위원	미국 (주한 미국 대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 로즈 중고품 할인 판매점 이사로 자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사관과 주한 미군 자녀뿐만 아니라 한국의 장애인, 독거 노인들을 위한 자선 활동 수행 ○ 미국여성클럽(AWC) 중역으로 복지위원회의 복지 기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 활동 시행 ○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AWC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바자회를 개최하여 자선단체에 겨울 옷 등 기부활동

번호	성명 (출생연도)	현직	국적 (추천자)	공적
20	유해연 (YU HAIYAN) (1965)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수석대표	중국 (주한 중국 대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국대표부 수석대표로서 한중 양국 업계의 협력 의지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 1992년부터 10년동안 한중 무역투자 진흥과 유치를 위한 공헌 및 한중 양국 업체간 새로운 협력 영역을 모색하며 윈윈 협력 달성에 기여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대표부는 주한중국상공회의소 회원사의 한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업무 및 교류 활동의 플랫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협력을 촉진하는 온라인상담서비스 창구를 최초로 설립 - ‘2016년 한중 기업가 협력발전 및 FTA산업촉진 포럼’ 서울 개최 등
21	스테판 하루사 (STEFAN HALUSA) (1965)	한독상공회의소 회장	독일 (주한 UN 대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한독상공회의소 이사진 활동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 한독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독일과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 ○ 주한 독일학교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과 독일 간 교육 및 문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 2015년부터 서울시 외국인투자자문단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에 적합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방향 제시 및 외국인 투자 참여에 기여 ○ 2011년 부터 BROSE Korea와 BROSE East Asia 대표이사로 한독 무역교류 증진 및 한국인 근로자 고용 등을 통해 한독 경제발전에 기여 ○ 자동차부품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활동을 통해 한국·UN FTA 활성화에 기여